

□ 세입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국내 경기회복의 다양한 정책 등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,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불확실성 혼재로 안정적 재정운용이 필요

-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둔화가 예상되며, 지방소비세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소득세율 인상과 소비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 전망이나, '13년도 내국세 감소분 반영으로 감소
-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 요인이 있으나, 도청이전 국비지원과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 증가

□ 세출은 도청이전사업 마무리, 제6회지방동시선거, 복지수요 지속적인 증가, 과학기술 R&D 신성장동력산업 육성, 관광·문화콘텐츠산업육성,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

- 韓 강·산·해를 활용한 생태·문화관광자원화, 新성장동력산업 발굴, 지역 SOC투자를 통한 균형개발, FTA대응 농·축·어업 경쟁력 강화 등 재정수요 지속 증가
- 맞춤형 고용·복지정책 확대와 수요 증가로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중
- 특히 도청이전 마무리, 동해안 해양개발,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, 새마을운동 세계화 확대, 세계 물포럼, 경북 혼 찾기 등 세출수요 증가

□ 따라서 자체사업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행사·축제성 경비, 민간이전 경비 등 절감과 동시에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

⇒ **재정건전성 기초를 최대한 유지, 일자리 창출의 창조경제산업 중점 투자**